

剝脫性皮膚炎의 治驗 1例

林承淑*·蔡炳允*

I. 緒 論

剝脫性皮膚炎이란 皮膚의 대부분 또는全體에 發赤과 落屑이 생기는 炎症性疾患으로서 어떤 藥物에 의하거나 皮下 또는 全身疾患의 經過의 일부로서 나타날 수 있으며 40代 이후에 頻發한다.¹⁾

皮膚의 血管이 확장되어 성홍열 때와 같이 全身의 皮膚가 發赤하고 그 후 바로 皮膚가, 물고기의 비늘 또는 쌀겨와 같이 乾燥하고 얇게 벗겨지며 심한 落屑을 동반하므로 剝脫性皮膚炎이라 하나 이것은 疾患名이라기 보다는 症狀名이라 볼 수 있다. 이 疾患은 原發性和 續發性的의 2종류가 있으나 原發성은 急性 내지 惡急性의 경과를 취하며 그 症例數는 극히 적다. 따라서 治療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자인 續發性이다.²⁾³⁾ 이에 剝脫性皮膚炎의 1例를 治療하여 현저한 효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症 例

44歲된 多少 肥滿型의 女子患者로 약 10여년 전부터 下肢脛部 및 足跗 등에 冷感을 自覺하여 여러가지 治療를 받아 보았으나 別無 效果의 상태였다. 그러던 중 86年 1月 21日경도 곳에서 丸劑와 蠟劑를 服用하기 시작하여 약 1개월 後인 86年 2월 18日경 背部에 작은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86年 2월 23日경에는 顔面部 頸部 등으로 확산되며 搔痒感이 나타나고 浮腫이 일어나며 점차 심해져 黃色진물이 물 흐르듯 흐르는 상태로 병이 진행되어 갔다. 86年 3월 5日경 모 병원 皮膚科에 入院하여 諸般檢査를 받아 보았으나 별다른 異

常所見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증상은 多少 緩和되어 약 20여일 후 退院하였으나 退院後 다시 症狀이 심해지기 시작하여 약국에서 연고제를 사서 바른 후 전돌 나오는 것은 그쳤으나 皮膚가 조여들고 痛症이 나타나며 鱗屑이 계속 脫落하는 등 症狀이 회복되지 않아서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 來院하였다. 來院前 모 검사실에서, 그 복용했던 蠟劑를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다량의 수은이 검출되었다고 하였다.

來院 當時의 症狀은 全身皮膚의 發赤과 심한 搔痒感, 腋窩部 頸部 背部 大腿部 膝脛部 등에 白屑의 反復的인 脫落, 顔面部 下肢部 등의 심한 浮腫과 手足掌部가 角化된 狀態였으며 환자는 背部 惡寒을 심하게 呼訴하여 밤에는 이불 3겹과 hot pack으로도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 舌苔는 白滑하였으며 脈은 浮細數하였다. 治療는 일단 全身的인 皮膚搔痒感을 심하게 呼訴하여 鍼으로는 舍岩針法의 大腸正格을 1일 1회 旋術하였고 血海 曲池 足三里를 各各 5壯씩 溫灸하였다. 湯藥은 椒甘湯을 1일 2첩 3회 分服시켰으며 黃昏後에는 심한 搔痒感이 있어 때때로 苦蔘胡麻散을 散劑로 투여하였다. 治療경과 중 症狀의 變化가 있었고 그에 따른 처치의 變경이 있어 그것을 道표(表1)로 表示하였다. 椒甘湯方劑는 다음과 같다.

川椒 甘草 各五戈 葛根 升麻 各一戈五分 黃芩 黃連 各一戈 蒼耳子 二戈

III. 考 察

이 疾患은 全身性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皮膚에 浸潤性 潮紅과 심한 落屑을 동반하기 때문

表 1. 治療經過中の 證狀과 處置

날짜	증 상	Vital sign	처 치	기 타
4/7	全身皮膚 發赤 頸部, 腋窩部 滲出物 顔面, 下肢 浮腫(+++) 搔痒感(+++) 背部 惡寒 泄瀉(1일 2~3회)	BP. 130/90 BT. 36℃ P. 87회 R. 34회 (WNL)	椒甘湯	(入院) 苦蔘胡麻散 1포 투여
4/8	全身 皮膚症狀 別無變化 泄瀉 → 軟便	(WNL)	椒甘湯	//
4/9	排尿量 減少 浮腫如前(+++) 搔痒感 尤甚 背部惡寒 減少 耳內 滲出物	BT. 37.4℃	萆薢滲濕湯	金木八正散 1포 투여
4/10	排尿快出, 多量 浮腫 減少(++) 搔痒感 晝間減少 耳內 滲出物 尤甚 全身皮膚 引感 疼痛	BT. 36°5	椒甘湯	金木八正散 1포 투여 耳疳散 耳內撒布 皮膚 바세린 도포 全身 녹말물로 沐浴
4/12	浮腫 減少(+) 搔痒感 減少(++) 耳內 滲出物 多量出		//	//
4/13	浮腫 再甚(+++) 皮膚發赤 搔痒感 再甚 耳內 滲出物 如前	P. 130	//	//
4/15	浮腫 減少(++) 搔痒感 減少(++)		//	//
4/16	皮膚發赤, 搔痒感 減少 耳內 滲出物 減少	BT. 37.4℃	//	金木八正散 1포 투여 皮膚 바세린 도포
4/17	皮膚症狀 점차 好轉 搔痒感 減少(+)		//	金木八正散 1포 투여
4/19	搔痒感 晝間消失 惡寒氣 消失	BT. 37.6℃	椒甘湯 加白蘚皮	//

날짜	증상	Vital sign	처치	기타
4/22	面部 下肢 浮腫 減少		加白蘚皮	
4/23	發病後 最初 汗出		//	
4/24	上氣 上熱感 發生			安心溫膽湯 1포 투여
4/25	皮膚發赤 再現 搔痒感 再發(++) 顔面浮腫 再發(++)		//	//
4/26	搔痒感 점차 尤甚(++++)		//	苦參胡麻散 1포 투여
4/28	搔痒感 下肢側으로 확산		//	
4/29	如 前		//	八味地黄丸 1포 투여 洗滌用 湯藥 (蒼耳子 30g 合 蛇床子 80g)
4/30	搔痒感 減少(++) 面浮腫 減少(+) 軀幹部 鱗屑 微甚		//	祛風清肌散 1포 투여 湯藥 洗滌 계속
5/1	發赤, 浮腫 好轉(+)		椒甘湯 加浮萍草	//
5/6	浮腫 微殘(±) 癢痒感 微殘(±) 面部 軀幹部 下肢部 皮膚 正常化 上膊部 發赤癩痕 微有		//	//

에 剝脫性 皮膚炎 혹은 紅皮症이라 稱하는 것으로서 통상 疾患名이라기 보다 症狀名으로 불리는 것이다.¹¹⁾ Wilson 이¹¹⁾¹²⁾ 처음 기술한 疾患으로 그 후 Brocq⁹⁾가 더 자세히 박탈성 皮膚炎의 실제와 특징을 밝혔으므로 Wilson - Brocq's disease 라고도 한다. 原發性과 續發性 이 있으나,⁹⁾ 全身疾患에 대하여 이차적으로 박탈성 皮膚炎이 생기는 기전은 확실히 규명되지 못하였으나 잠재된 疾患에서부터 皮膚에 대한 독소로 작용하거나 정상면역 방어기전을 억제하는 어떤 화학물질이 유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²⁾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가지들이 논의되어져 왔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피부 및 내부 임

파증계의 악성질환 약물로 인한 피부반응등의 기존질환에 대한 속발성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본증의 상당수가 약물성 중독으로 나타나 중금속이나 항생제 등의 잘못 사용으로 본증을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다.⁶⁾ 그 증상은 인체피부의 대부분에 이르러 落屑과 紅癩이 나타나는 것으로 만일 심한 鱗屑 脫落이 계속되면 저단백혈증등 여러가지 영양결핍을 초래하기도 한다.⁶⁾ 또한 高熱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세균의 2차 감염시 현저하며 高熱이 나는 경우 손상된 상피를 통하여 체액의 손실이 일어나 脫水症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가져온다.⁶⁾ Rothberg¹⁰⁾ 등은 본 증에서 表皮의 增殖과

脫落이 정상시의 9배 정도라고 하였고 또한任⁶⁾ 등은 脫毛症이 생기기도 하고 瓜甲의變化도 흔히 나타나 瓜甲이 두터워지고 變色되며 過角化症으로 불투명하게 되거나 陷入도 흔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 經過는 잠재된 원인질환에 따라 다르나 원인이 제거되면 전신요법 및 국소요법으로 수주 내에 치유되기도 하나 때로는 별변화 없이 수 개월 내지 수 년간 지속되며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기도 한다. 만일 세균감염이 합병되어 肺炎 心不全 敗血症 등이 일어나면 매우 위험하며 皮膚炎이 우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²⁾

急性 滲出期에는 온수목욕을 약 30分씩 하루 2~3회 정도 하는 것이 좋다. 慢性 乾燥期에는 자극이 적은 연고나 로션을 도포하고 고단백식과 水分을 충분히 섭취하며 몸을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1,6,7)}

東洋醫學의 으로 볼 때 이 患者의 狀態가 肥濕하고 全身皮膚에 黃色 진물이 흐르며 浮腫 皮膚膨滿 批糠樣落屑 濕疹樣 등의 狀態로서 舌苔는 白色을 띠고 滑하며 背部惡寒과 下肢冷感을 呼訴하는 것으로 보아 寒濕의 冷한 體質로 생각되어 辛熱한 藥物인 椒甘湯을 사용하였다. 椒甘湯의 藥理作用에 있어서 甘草는 十二經에 歸經하여 百藥을 解毒시키고 調和하는 作用이 있으며⁴⁾ 세균성 독소나 藥物 食中毒, 代謝產物 中毒 등에 대한 解毒作用이 있는데 이것은 Corticoid 樣作用 吸着作用 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³⁾ 또한 清熱解毒力이 強하여 炎症, 化膿症, 濕疹 등과 感冒, 發熱疾患 등에 甘草를 사용한다. 川椒는 味辛 性大熱하고 有毒한 藥物로서 溫中止痛하여 虛寒性 疾患이나 寒飲 등에 쓰고 祛濕 驅蛔하며³⁾ 邪氣와 虫毒을 없애고 水道를 원활하게 通利시키며 또한 溫中하고 肌肉의 寒冷과 痺痛을 없앤다.⁵⁾ 蒼耳

子는 味甘苦하여 性溫하고 有小毒하며 祛風散濕하고 抗菌 消炎作用이 있다.³⁾

川椒가 매우 熱한 葯이나 患者의 狀態가 약 20년 동안 膝部에서 足跗까지 冷하여 왔고, 來院 당시 舌苔가 白色을 띠고 滑하여 오랫동안 沈寒固冷한 狀態였던 것으로 보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葛根은 皮膚와 肌肉의 熱을 除去하고 津液을 生成하며 筋脈을 滋潤시키고 清熱解毒하며 升麻는 解毒 解熱 淨血시키고 모든 瘡瘍의 毒을 없애고 黃芩은 清涼解熱劑로 瀉火 除濕하며 胃中의 熱을 消失케 하고 黃連은 水分을 없애고 腸炎을 除去하며 心火를 降下시킨다.³⁾ 그러므로 椒甘湯은 川椒의 辛熱한 것을 甘草와 黃芩 黃連으로 中和시키는 동시에 病邪의 毒을 풀고 葛根 升麻 蒼耳子로 皮膚의 濕疹을 除去함과 동시에 淨血시키고 解毒함으로써 剝脫性皮膚炎에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된다.

IV. 結 論

皮膚의 광범위한 부위에 發赤과 심한 落屑을 일으키는 炎症性疾患인 剝脫性皮膚炎은 주로 전신질환에 대한 이차성병변으로 발병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상당수가 약물중독으로 보고 되고 있다. 著者는 본증을 일으킨 40代 女子患者를 針灸 湯藥을 사용하여 치료한 결과 크게 호전되었다. 이 환자는 제반증상이 濕疹樣의 皮膚症狀를 呼訴하였고 본래부터 寒冷多濕한 體質이었으며 본 증의 유발원인으로 약물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이에 辛熱한 皮膚疾患의 치료제로서 解毒力을 가진 椒甘湯 加味方을 응용하고 針치료와 溫灸를 겸하여 치료해 본 결과 제반증상이 소실되었고 정상상태를 회복하였기에, 박달성 皮膚炎에 대한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1. 金東輝外 편저 : 最新診斷과 治療, 서울, 약업신문(주), p.518, 519, 1983.
2. 대한피부과학회 편저 : 皮膚科學, 서울, 麗文閣, p.116, 117, 1983.
3. 李尙仁, 安德均, 辛民教 : 漢藥臨床應用, 서울, 成輔社, p.73, 74, 216, 236, 361.
4. 黃道淵 :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p.121, 221, 1982.
5.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743, 1981.
6. 任哲完, 金永杓 : 剝脫性 皮膚炎 26 症例 報告, 대한피부학회지 제 12 권 제 2 호, p.10, 13, 15, 1974.
7. Gordon C. Saner : Manual of Skin disease, J.B. Lippincoff Company, p.208, 1980.
8. Baxter, E.B : Dermatitis Exfoliativa, Brit. Med. J., 2 : 79-88, 1879.
9. Brocq, J.L : Cited from Shelly, W.B., Crissey J.T. and Stokes, J.H. : Classics in Clinical Dermatolog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s, p.305, 1953.
10. Rothberg, S. Crouse., R.C. and Lee, J.L. : Glycine C¹⁴ Incorporation into Protein of Normal Stratum Corneum and the Abnormal Stratum Corneum of Psoriasis. J. Invest. Derm., 37 : 497~504, 1961.
11. Wilson, E. : Disease of the skin, Ed. 6, John Churchill & Son, London, p.176, 1876.
12. Wilson, E. : On Dermatitis Exfoliativa, Med. Times and Gaz., 1:118~119, 1870.